



2012년 2/4분기 가계 및 기업 자금흐름 악화

채원영 연구원

- 2012년 2/4분기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¹⁾의 자금잉여 규모와 비금융법인 기업의 자금부족 규모가 모두 전분기보다 감소하여 가계와 기업 모두 자금 흐름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- 2012년 2/4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20조 원으로 전분기대비 12조 7,000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 차입은 증가한 반면 예금 등 자금운용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.
 - 2/4분기 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14조 1,000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10조 7,000억 원 증가한 반면 자금운용 규모는 34조 1,000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2조 원 감소하였음.
 -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조달 규모는 증가한 반면 자금 운용규모가 감소한 것은 가계의 금융부채는 증가하였지만 이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.
- 비금융법인기업의 자금부족 규모는 18조 원으로 1/4분기 20조 8,000억 원에서 2조 8,000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²⁾때문임.
 - 2/4분기 중 비금융법인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20조 4,000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33조 2,000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설비투자 감소로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임.
 - 2/4분기 중 비금융법인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7조 9,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5조 5,000억 원 감소하였음.
 - 이는 유로존 재정위기 및 미국·중국의 실물경제 위축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유가증권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투자위축,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감소 때문임.

(2012년 2/4분기중 자금순환(잠정), 한국은행, 9/17)

1) 소비자단체, 자산구호단체, 종교단체, 노동조합, 학술단체 등.

2) 설비투자 전년동기대비 '11. 2/4(7.7%)→'11. 3/4(1.2%)→'11. 4/4(-3.3%)→'12. 1/4(8.6%)→'12. 1/4(-3.5%).